

금호타이어, 지붕 뚫린 공장에서 타이어 생산

화재 피해 광주 2공장 시범 가동... 비가림막 설치 '반 야외' 작업
초겨울 날씨 열악한 근무환경 속 노동자들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

지난 5월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지붕마저 뚫려 있는 2공장에 작업자를 투입 하고 '시범 가동'에 나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중 대재해 예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호 타이어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와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측은 임시 조치를 했고 보수 공사로 진행 중이 라고 해명했지만, 노조에선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은 불에 탄 2공장의 정련 공정을 제외하고 곡성공 장에서 정련된 고무를 들여와 1공장 성형·가류 공 정, 2공장 내 불에 타지 않은 일부 설비를 활용한 검사 공정, 출하 등 후공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오전 ·오후 2교대로 하루 16시간씩 가동을 이어가고 있 다. 근무자는 반장급 감독자 80여명으로, 하루 1000본 안팎의 타이어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월 화재로 지붕이 전소된 2공장은 아직도 천장이 크게 뚫려 있으며, 겨우 비가림막과 비닐막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설비 가동은 가능 하지만 상부 구조가 없는 사실상 '반 야외' 환경에 작업자들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화재로 뒤흔들린 지붕 아래에서 공장 내에서 열일 시험가동 작업을 수행중인 노동자들은 공장 내부에 있는데도 사실상 외부 현장과 비슷하게 먼지나 일

교차가 심한 외부 날씨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이른 아침이면 초겨울 날씨를 보일 정 도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 출된 작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타이어 완성품 출하 과정은 고중량 제품 이동과 지게차 운행 확보가 필요한 공정인 탓에 자칫 햇빛 등의 영향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안전사 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도 이같은 사측의 공장 운영 방식을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지붕도 없는 공장에서 작업은 인권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더 이상 직원들을 위험한 작 업 현장으로 내몰수 없다"면서 "안전한 상태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금호타이어 사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닐, 천으로 지붕 가림막 을 설치했고 현재 해당 구역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 고 있다"며 "이달 중 지붕 보수가 완료되면 해당 구 역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회 사의 생존과 구성원의 미래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 5월 발생한 화재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전소된 2공장 천장을 비닐막 등으로 가리고 설비를 가동(노란색 점선 부분)하면서 작업자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군공항이전, 국감 이후 속도 낸다

다음주 실무협의후 후 6자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대통령실 산하 '광주 민·군 공항 이전 6자 TF'가 이달 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 7월 TF가 구성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실무 협의만 진행하며 공전하던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종료 후 실무 협의 를 통해 쟁점을 조율한 뒤 빠르면 이달 말 공식 6 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대통령실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 주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TF 당사자들에게 '국감 이후 보 자'고 한 것은 첫 공식회의인 6자 회담 이전에 실 무회의가 먼저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 치·행정적 부담을 덜게 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그간 무안군과 물밑 협의를 통해 쟁 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근접한 수준'까지 견해차 를 좁힌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이달 안에 6자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 는 낙관론도 있다.

현안이 압축된 상황에서 무안군이 수용하면 '한 두 차례 회의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이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와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전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 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 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先) 제시'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선결조건과 관련,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문 제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전제 조건 없 이 6자 TF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협상 재개의 물 꼬를 텃다.

결국 실무회의에서는 비용 추계 분석과 정부 지 원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 협의 후 바로 6자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는 무안군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안군이 조건을 수용하더라도 합의 직행은 어 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공청회로 주

민 설명과 쟁점 해소를 진행한 뒤 주민투표로 가 락을 잡을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준비에 들 어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안군이 국가 인센티 브 등의 수용여부가 어느 정도 가늠이 잡히면 군공 항 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지난 6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 운출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실 주관 6 자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이후 구성됐다. 8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와 함께 각 기관의 입장 차이와 무안군의 전제조건 제시 등으로 실무협의 만 2~3차례 진행했을 뿐,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공 식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T, 지난해 서버 해킹 알고도 은폐 정황

정부 "엄중 조치" 예고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r)라는 은닉 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 으로 파악됐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 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가 감염 사실을 은폐하며 SKT 사태 이후 당국이 해당 악성코드 감

염 여부에 대해 업계를 전수조사한 과정에서도 해 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간 합동 조사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 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 난해 3~7월 BPF도어, 웬셀 등 악성코드에 감염 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다만, SKT처럼 가입자 핵심 정보가 저장된 HSS 서버가 피해 대상에 포함됐는지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SKT 공격자와 동일 여부 등에 대해서 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 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 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방선거 누가 뭐나 - 장성군수·진도군수 ▶5면

복스 - '박물관 스토리텔링' '... 남새' ▶14·15면

전남 우수 일자리 기업 - (주)현대솔라텍 ▶22면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